



- 가정의 달 특집
- 주안에만남
- 교육부 소식
- 목장 / 칼럼

“감사와 축복”



■ 가정의 달 행사 특집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정은 이 땅의 천국, 천국의 그림자라고도 합니다.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했던 초대교회가 목적하고 실천했던 것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모두가 함께 소유하고 또 함께 나눕니다.

그도 서로에게 양보하고 더 주려고하지요. 부부는 한 몸이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늙으면 봉양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안예교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행사를 엽니다. 먼저는 아이들을 위한 잔치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소중한 선물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애쓰는 곳이 주안예교회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특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6면에 계속> | 조성운 기자 |

■ 채플 청소

“교회 구석구석 깨끗하게” 목장별 아름다운 섬김



5월부터 시작된 목장별 교회청소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교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이상 청소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예배당을 비롯한 교회의 구석구석을 쾌적하게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이 행사는, 맬리채플과 MP 채플이 동시에 시작을 했으며 다행스럽게도 섬기시는 분들 모두가 일주일동안 쌓인 직장으로부터의 피로도 외면한 채 아침부터 나와야하는 불편함도 감수하며, 이 또한 예배의 일부로서 여기면서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여서 각자가 맡은 부분을 소중하게 관리하려 노력하고 있다.

작은 휴짓조각 하나라도 자신의 일인양 솔선수범하여 치우는 모습속에서 서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이 아름다운 섬김이야말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오희경 기자 |



■ 권사회 소식(MP)

어버이주일 정성스런 ‘식탁 차리기’ 사랑의 수고

MP채플 권사회(회장 이계순 권사)에서는 지난 5월 13일(어버이주일) 2부예배 후에 400여성도님들을 위해 귀한 점심 만찬을 대접하였습니다.

맛있는 불고기와 두부부침 그리고 토마토 샐러드와 흠메이드 김치까지, 평소보다 훨씬 맛있고 풍성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금요일부터 장을 보느라 땀을 흘렸고, 많은 권사회 회원들이 토요일과 주일아침 일찍부터 나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든 권사님들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어버이주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MP 권사회에서는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안수집사회의 도움을 받아 70세이상 성도님들께 드릴 정성 어린 선물도



함께 준비를 하여 전달해 드렸습니다.

물론 MP권사회에서는 평소에도 많은 사역을 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들을 하나

나 해 나가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영성예배 때는 직장을 마치고 일찍 교회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또 매 3주마다 김치를 담그는데 그 양이 무려 50LB짜리 7박스라고 합니다.

우리 MP채플의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고 애쓰시는 MP 권사회가 날로 발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

할 때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모든 권사님들이 건강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 이광영 기자 |

■ 교육부



ICY 학부모 기도모임

5월 4일 MP채플의 금요일예배를 마치고 교육부 학부모 기도모임이 상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교육부 기도모임은 육의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만을 위한 기도모임이 아닌 영의 자녀를 둔 우리 모두의 기도모임이니 더 많은 영적 부모님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9:29)
| 박경숙 기자 |

■ 밸리채플 주안에만남



허제니 집사



유병국 집사



김길남 성도



장혜정 성도



성운호 안수집사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밤늦도록 웃음꽃

5월 10일(목) 저녁 7시, 23명의 새신자 등록 교인들이 주안에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데코팀이 풍선과 채소꽃들로 가득히 장식한 101호실에는 흰블라우스, 검정바지, 검정 앞치마를 함께 차려입은 새신자부원들이 손수 준비한 맛난 Home Made 음식으로 즐겁게 만찬상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인다.

7시 가까이 되니 기대에 가득찬 얼굴들이 수줍은 듯 환한 미소로 서로 만남의 공통점을 공감하며 자리가 채워지고, 김진석 장로님의 축하인사와 이한용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여 맛난 음식을 나누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무르익어가고, 고웅일 목사님의 찬양인도로 성령충만함이 채워지고, 최혁 담임 목사님의 환영메세지와 묵회 철학, 성도간에 화목관계와 예배의 중요성과 다음세대를 준비하며 일세들이 먼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함을 강조하시고 또 각자 자기소개 시간으로 좋아하

는 음식과 주안에교회 등록하게 된 동기 및 교회에 대한 질문들로 밤 늦도록 깊숙한 교제를 나누고, 목사님의 깜짝 퀴즈로 4명에게 상품이 전달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모두 같은 마음으로 주안에교회에 접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하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공통분모를 찾은 귀한 만남이 되었다.

특히 이번 모임에 참석한 가정 중에 대부분에 남자들이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맛을 알고,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았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며... 주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성도가 성숙하게 자라날 것을 확신하며, 새신자 사역국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기적을 이루게 되도록 기도로 간구하며 헤어졌다.

| 김신실 기자 |



박동완 장로/경진 권사



김에드워드/순미 집사



이윤구/정진아 집사



최중선/옥희 집사



장미숙 집사



유두현 안수집사/영애 권사



이승태/현숙 집사



박상근 안수집사/신인숙 집사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 비즈니스 일기/ 나윤자 권사(MP)

‘친절하게 인심 좋게’ 모든 고객들 따뜻한 인사 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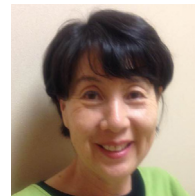
미국에 이민 와서 세 번째 비즈니스를 LA 한국 타운에서 운영하며 느낀 점을 몇 가지 적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 모르던 때 LA한인타운에서 선물센타를 5년간 운영하다 다른 분에게 팔고 주민의 80%가 백인인 파우젠옥스로 옮겨 그곳에서 20년간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다는 그곳으로 갔는데 딸과 아들이 공부 다 마치고 결혼도 다 시키고 나니 더 이상 거기서 살 이유가 없어 정리하고 다시 LA한인타운으로 이주하여 식물원과 꽃집을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미국인 지역에서 살면서 가끔 한국을 식집에 가서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을 만큼 한국 문화가 좋고 한국 분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인타운에서 한국 분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니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정말로 친절한 손님 접대와 인심 좋은 운영을 원 없이 하자고 남편과 의논을 하였습니다. 채소 모종을 팔 때 좀 시들거나 부실한 것을 한 두 개 덩으로 주거나 “나 거름 흙 짜끔만 줘요” 라고 말하는 할마씨에게는 한 바가지 폭 퍼서 드리며, 꽃꽂이 할 때 남보다 장미 한 두 송이라도 더 꽂아 주자는 생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식물원과 꽃집을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낀 때는 결혼식 꽃을 해준 부부가 첫 예기 돌잔치에 꽃을 오더하러 왔을 때 친 손자를 본 것같이 반가웠고 과일 나무를 사간 손님이 대추가 많이 열렸다고 먹어 보라며 봉투를 내밀 때 너무 흐뭇했습니다. 흙을 자주 다루다 보니 흙 묻은 옷을 입고 일할 때가 많고, 일 할 때는 새 옷은 거의 입을 양이 없었기 때문에 축은해 보였던지 옷을 사다 주시는 분이 가끔 있고, “참새가 방앗간을 어떻게 그냥 지나쳐” 하며 만두 한팩을 내밀 때는 정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금년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은퇴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1년을 더 하게 되어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답없이 일하다가 끝내려니 섭섭하기도 하였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오늘도 힘을 냅니다.



이인범 장로, 이계순 권사(MP) 이인범 장로님과 이계순 권사님의 사위와 딸인 이우석 집사와 이경빈 집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인 딸, 채은이의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채은아! 너는 주안예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내가 하루하루 예쁘게 자라는 모습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감사한다. 무럭무럭 자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이 되도록 기도할게! 해피 버쓰데이 투 유!



임용자 권사(밸리) 밸리채플의 임용자 권사님은 브니엘을 섬기시면서 많은 교우들과 자유롭게 소통하시는 장점을 살려, 앞으로 주안에 신문 기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SAT 학원을 운영하시면서 자녀교육을 위해 방문하셨던 학부모님들에게 대학입학 정보및 자녀교육에 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으로 쌓아진 해박한 지식과 달변의 입술씨가 이제는 글솜씨로 주안에신문을 더욱 돋보이게 되어 감사드리며 임용자권사님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김지태, 김혜자 집사(MP) 김지태, 혜자 집사님이 아들 알렉스군을 장가보냈습니다. 아들이 아직 20대 중반이지만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 일찍 결혼을 시켰다는 소문도... 이제 조만간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네요. 축하합니다.



박창신 권사(밸리) 금년 남가주 경희대 총동문회장을 맡아 활발하게 뛰고 있는 박창신 권사가 5월 18일 오후 7시 LA 한길교회에서 동문들로 구성된 경희코랄의 창단연주회를 훌륭하게 치렀다. 바리톤 알베르토 최(한세대 교수), 소프라노 최정원, 테너 최원현이 합창과 함께하여 우리에게 친숙한 가곡, 팝, 복음성가, 가요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지연 성도(MP) 코람데오 한어청년부에 속해 있는 김지연 성도가 다음달 결혼을 하게 되어 코람데오 친구들이 브라이덜 샤워를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꽃과 음식, 게임과 선물들로 풍성하게 꾸민 자리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지연 자매를 마음껏 축하하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정현 성도(MP) 주안예교회에서 그동안 키보드 반주자로 예배를 정성껏 섬겼던 이정현 성도가 하와이에서 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편인 신진석 형제를 따라 텍사스로 거처를 옮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된 이정현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졸리 집사(MP) 고졸리 집사님이 고명 딸 카니를 신부의 계절 5월에 결혼시키는 경사를 가져 많은 교우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말리부 뒷산의 아름다운 숲속에서 열린 결혼식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빨리 할머니 되도록 기도할게요.

■ 새 책 출판/ 고웅일 목사 '꿈꾸는 예배 인도자'

이 책은 우리 주안예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고웅일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경험하고 느끼신 점을 종합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낸 찬양사역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으로는, 여러 예배인도자들의 공통적인 고민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는데, 이론 중심인 많은 책들을 벗어나 좀더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따라서 본 저서는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15년 이상을 예배인도만 전문적으로 해오면서 예배인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왔던 것에 대해 성경의 진리와 여러 선배 예배 인도자들의 도서와 함께 이리저리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기술한 '나름대로'의 답을 내린 자기계발(장르)을 위한 글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소규모이든 대형 집회에서도 찬양을 인도하시는 사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16,000여명이 모였던 두 날개 국제컨퍼런스 찬양집회시 컨퍼런스 주제가 '성령으로' 를 직접 작곡하였으며 이 책에 자작곡 2곡이 수록되었습니다.) | 이광영 기자 |



■ 숨은 일꾼/ 김현웅 집사(MP)

모두에게 칭찬받는 참된 일꾼

집사님을 이번 달 '숨은 일꾼'으로 추천을 받고 집사님과 통화를 하였지만 하는 일이 없다며 말씀을 하지 않아서 고민을 하였다.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접촉하여 간접 취재를 하였다. 그런데 집사님의 교회 봉사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놀라게 되었고,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까지 하였다.



박은래 장로님께서는 김집사님을 주안예교회 보물 1호라며 칭찬하신다. “청소에서부터, 식사 준비와 간식, 아이들의 픽업, 의자 정리와 뒷마무리까지 김집사님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플리튼 채플에서 함께 주일학교 봉사를 했던 최진선 집사님은 김집사님이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다며 김집사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주안예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김현웅 집사님과 함께 일을 하면 즐거움이 넘칩니다. 제가 식사를 준비할 때에도 재료 준비부터 잔심부름까지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주안예교회에 와서 최목사님께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김현웅 집사님께서는 봉사하는 모습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귀찮은 일도 김집사님께 부탁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들은 미리 알아서 다 챙겨주십니다.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김수현 집사님도 김현웅 집사님을 주안에서 사랑한다며 칭찬이 끝없이 이어진다.

어렵게 몇 마디를 하는 김집사님은 겸손하게 자신을 숨기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을 칭찬하신다. “박은래 장로님, 최진선 집사님, 김수현 집사님, 제가 섬기던 국장님들과 리더들이신데요, 이 분들 덕에 제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늘 격려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안에 교회에서의 제 신앙이 부쩍 자랐습니다. 최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 조성운 기자 |

■ Teacher's Day/ 나의 제자 · 나의 스승

30여년전 잊을 수 없는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1987년 여름성경학교에서 만난 주일학교 제자들을 5월 5일 어린이 날을 보내면서 떠올려 봅니다. 그 때에 저희 반 학생들이었던 윤좌진, 한혜숙, 손윤영, 유석현, 박홍규, 차재선 제자와 5일간의 여름성경학교는 저의 교육부 사역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보람된 사역이었습니다.



저희 반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을 다른 반보다는 좀 더 돋보이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의자 가운데 양탄자를 깔아 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공부, 찬양, 율동, 놀이 등등.. 야호, 신난다!!

하루 순서가 끝나고도 집에 가지 않고 그 공간안에서 누워 동굴며 예수님의 사랑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때 그 모습을 떠올리니 어느새 제 입가에 미소가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엄마, 아빠가 되어 저와 같은 어른으로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을 지금 그 아이들의 모습이 마냥 궁금하며 아올러 무지 보고과 집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다 해도 언젠가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의 참된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 박경숙 권사(MP) |

선생님의 기도 모습 눈에 선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또한 5월에는 선생님의 날도 있다. 나는 선생님의 날이면 그립고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 주일학교 때의 선생님이시다. 선생님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선생님의 날이면 마음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조근희 권사(MP)

나는 3대째 이어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 식구가 모여 할아버지의 인도로 가정예배를 드렸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도록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다. 또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에 가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경책을 읽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하는, 어쩌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일학교 1학년년부터 3학년까지 나를 담당하셨던 여자 선생님은 비록 어린 나이이지만 나에게 이런 신앙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신앙, 내 평생을 지탱해준 실질적인 신앙으로 바꾸게 해주셨다. 먼저는 기도이다. 선생님의 기도는 참 순수하시고 간절하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님께 고하듯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신선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현재의 내 삶에 비추어보고, 적용하셨다. 예배를 드릴 때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시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교회에서 청소사든지, 주일학교 방을 정돈하고 미화하는 일, 우리들을 대하시는 태도와 말씨, 기도해주시는 모습 등등 모든 일이 나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내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선생님을 통해서 제 삶을 바른 길로 인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조근희 권사(MP) |

<1면에 이어>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만들어 직접 달아드리고, 주일학교에서 정성껏 선물을 만들어 어른들에게 선물도 드리고, 감사의 편지도 쓰고, 재미난 율동도 준비하여 공연도 하였습니다.

권사회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아 꾸집한 불고기 백반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이 아니라 온 교우들을 대접하였고, 또 어른들에게는 선물도 드렸습니다. 사실 권사님들은 모두가 어머니이고 할머니들로 자녀들에게 대접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사양하고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대접해 드리는 아름다운 효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목장들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앞 다투어 봉사하고 대접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가정은 우리의 고향이고 어머니의 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크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가정을 잘 가꾸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말씀과 기도가 끊임없이 샘솟고, 사랑과 나눔, 희생과 헌신이 넘쳐나는 가정, 바로 주안에 교회의 가정들이고 그 토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주안에 교회입니다.

■ 교육부 행사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IC KIDZ에서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그리고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들로 이어졌다.

오월 첫 주일 예배에서는 부모님들이 써주신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메세지가 전도사님의 낭독을 통해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의 사랑이 전해지는 순서가 진행되었고, 그 내용을 담아 만들어진 축복의 책갈피가 자녀들에게 전해졌다.

예배 후에는 아버지들이 참여하셔서 학생들 각자가 선택한 여러가지 토핑들과 아이스크림을 섞는 퍼포먼스를 선물하며 자녀들에게 보는 기쁨과 먹는 기쁨을 동시에 그리고 함께 함의 경험을 제공해 주셨다, 두 번째 주일에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자녀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고마움과 사랑을 담은 카드가 어머니들을 위해 준비되고 전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에는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다과와 귀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

5월의 가정의 달 가운데 준비된 섬김들을 통해 어른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세워주신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고마움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나아가 그러한 공유했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세대에 걸쳐 경험해 보고 알아가며, 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영적 가족들로서의 소중한 그 의미를 체험하고 마음으로 간직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다.
| 김명자 집사(MP) |

“그리운 나의 아버지...”

Father's Day 를 맞이하며 유독 한 장면의 추억에 깊이 잠겨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아빠, 아빠는 참 좋은 아빠야 !” 라는 나의 고백에 아버지의 눈가에서 금새 눈물 한방울이 똑 떨어지던 그 모습을 지금도 보듯 합니다. 몸은 이미 굳어지고 심장은 서서히 멈추어가고 있던 순간에 흘러내린 그 한방울의 눈물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과묵하기만 하셨던 아버지는, 꼭 한가지에 대해서만은 엄청난 수다쟁이로 변하시는 반전이 있는 분 이셨습니다. 바로 저에게 성경구절을 읽어주시며 하나님 얘기를 들려 주실 때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날 떨어지는 한방울의 눈물을 보는 순간 아버지께는 제 음성이 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저에게는 늘 들어왔던 “아빠 favorite” 성경구절들이 한구절 한구절 머리속으로 떠

성경말씀 귀에 쟁쟁

〈마희연 집사(MP)〉



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있는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떠올랐는지 모릅니다.

슬프기만 할 것 같았던 이별의 순간이, 오히려 어린시절 저에게 열정적으로 성경구절들을 들려주시며 한 순간에 수다쟁이로 변하시던 아빠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아빠와 함께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느낌으로 남아 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떠올릴때마다 난 생각을 해 봅니다, 난 나의 아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추억이 될까? 함께했던 시간들 속으로 돌아갈 때면, 아이들 콧가에 엄마로부터 들었던 성경구절들이 얼마나 들려올까? 그래서 미래의 그림을 마음에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예수님의 언어를 닮고, 예수님의 언어만을 자녀들에게 남겨 주면 참 행복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에, 그날 너무 행복했었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저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해 Father's Day 가 다가올 때마다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소중한 추억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하나님 역시 참좋은 영원한 아버지 이심을 고백합니다. Thank you, Abba !



한 나라의 역사는 평범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나의 아버님은 이조말 고종황제 때인 1908년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면에서 태어나셨다. 한복을 입고 짚신을 신였으며, 머리를 길게 타고 한학을 배우러 서당에 다니던 시절이었다. 청년이 되어서는 일본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학생으로 일본 유학중 만나게된 도모시 라는 미국선교사를 통하여 성경과 영어를 배우게 되면서, 모든 생각과 사고방식은 바뀌게된다. 졸업후 고향으로 돌아와 국민학교 교장겸 선생님을 동시에 하면서 여러학교를 세우시는중 해방을 맞게 되었는데, 어느날 팔푼에 빨간 완장을 찬 사람들이 집으로, 학교안으로 들이 닥치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외갓집과 아버지집에서 일하는 며슴들이었다.



며칠후 야밤중에 그중 한명이 몰래 찾아와서 알려주기를, 브르조아 집안이라 사형명단 3번째에 있으니 이밤이라도 빨리 떠나라고 알려주는바람에 아버님은 인사 한마디 못한채, 신북청면 역장이었던 처조카의 도움으로 삼일을 역전에 숨어있다가, 석탄차를 타고 서울로 오시게 되었다. 오갈때 없고, 심한 함경도 사투리로 취직이 어렵던 어느날 남대문을 구경하고 중앙청으로 갔다가 대한민국 국기와 미국성조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 감사해 광화문 대로에서 큰절을 하고 가까이 가보니, 미헌병이 정문에 서있어서 영어로 말을 시켜보니, 그헌병이 놀라며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만 안으로 들어오라 해 들어간 곳이 미군정시대의 총본부였다. 그당시 군정최고 사령관이었던 하지중장의 통역관으로 취직이 되었고 군정이 끝난 후에는 용산 미8군에 배속되어 6.25 사변때도 통역관으로 전쟁터를 누비면서 난데없는 삶을 사시게 되었다. 사변이 끝나고 내나이 다섯살 때 아버님은 어떤 아저씨들과 나를 데리고 산에가서 막대기를 땅에 박으며 어린 나에게 망치를 주시며 땅땅치라고 하셨던 기억이난다

그 따뜻한 등에 얹혀...

〈임용자 권사(벨리)〉

그당시로는 문교부에서 정식허가난 4년제 신학대학인 한국신학대학의 태동 이었다. 또 대학과 함께 효창운동장 건너 빨간벽돌교회도 세워져 미국 올 때까지 효창교회를 섬겼으며, 수요일에 때는 아버님 손을 잡고 예배가서 어린내가 간의자에서 잠이 들면, 집에올때 아버님은 나를 꼭 업고 오셨다. 아버님의 넓고 따뜻한등이 지금도 그립고 생각이 난다. 2001년 시애틀에서 마지막으로 뵈었을때 아버님은 내게 부탁겸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북녘땅이 열리면 아버님과 손잡고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거라 하셨다. 그 몇달 후 주무시다가 94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나의 아버님, 북녘 땅이 열리면 꼭 그 소원을 들여드릴게요. 살아생전 한번도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하여봅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은 믿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려 이땅에 오셨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 임용자 권사(벨리) |

■ 칼럼

학부모 모임 활성화

자녀는 평생 숙제라고 합니다. 12살 딸 아이의 사춘기를 맞아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숙제가 좀 어렵습니다. 눈을 뜨면 지해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자연스레 교육부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조이메기 집사(MP)

실은 PSG(parents support group) 리더로서 더 많이 섬기고 관심을 갖아야 함에도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MP로 오게 되면서 매달 있었던 학부모 회의가 일년에 두번으로 축소되면서 할 일이 줄었다고 내심 기뻐했는데요.. 지난 번에 있던 학부모님 회의를 참석하면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과 자녀들을 향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더 모여야 하며 더 기도해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에 PSG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있을 VBS와 주일예배, 또한 교육부에 헌신하고 계시는 전도사님, 선생님, 스테프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모든 학부모님들이 기도로 써포트 하며 활발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매주 부모님들이 자녀들 예배를 함께 드리며 자녀들과 선생님들을 돕는 섬김을 많은 부모님들이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며 교회와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 자녀들을 양육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PSG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PSG 예배에 발런티어로 참여 하면서 교회와 가정이 자녀들을 위해 하나로 연결 될 수 있는 브릿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PSG로 세워주시길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사랑의 수고와 기도의 눈물이 모아져 자녀들에게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흘러 갈수 있기를 함께 동참 해 주세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 VBS

“교사·학부모·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VBS로”

2018 여름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에 초대합니다

주일학교의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아이들의 긴 여름방학의 시작을 알리는 VBS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올해에는 6월 8일과 9일(금/토)에 열리며 “Jesus Rescues”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여느때와 같이 어린 교회학교의 자녀들을 위해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참여하고 수고해 주실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추억이 남겨지는 여름 성경 프로그램이 되길 소원합니다.

VBS를 통해서 세가지의 목표를 한번 더 상기하길 원하는데 첫째로는, 아이들에게 잘 준비된 다방면의 활동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신앙의 원리를 경험하는 시간, 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관계의 시간들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사역의 측면에서 교회학교 스태프들,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더 가깝게 교제하고, 성

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한단계 성장할수 있는 계기로 삼고, 셋째로는 본교회 학생뿐 아니라 친구나,



이웃의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잔치, 교회로 인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마음을 지키고, 하늘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나누며 연습해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 이니콜 전도사 |

2018 VBS: "Shipwrecked, Rescued by Jesus", Date: MP-June 8(Fri.), 9(Sat)/Valley: June 21-23(Thu.-Sat)

■ 중고등부 락인

“새 교회·새 친구들 밤새워 즐거운 시간”



지난 5월 18~19일(금-토) 2일간 MP채플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가 되자”란 주제 하에 교회에서 하루 밤을 지내며 락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이성우 전도사님, 조원 부장집사님 크리스 선생님 그리고 이재은 선생님의 지도하에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함께 하며 게임을 즐기는 그들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번 락인 행사는 좀 특이했습니다. 이성우 전도사님이 새로 MP채플을 담당하시게 되어 학생들과 상담을 하던 중 여러 학생들이 락인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진행하게 되었고 주제 선정과 계획, 진행을 학생들이 주관하여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사를 마치고 이성우 전도사님은 “참으로 축복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평가 하였고, 조원 부장집사님은 ”함께 즐겁게 놀고, 먹고 자는 동안 서로 친해지고 이해하는 유익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목격한 시간이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락인 활동을 하는 시간인 금요 영성예배 후에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이 목양실에 함께 모여 중고등부 담당국장 나형철 장로의 인도로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진행 중인 락인 활동을 위해 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토요일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신 학부모도 계셨고 또 함께 모여 식사 준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숙되고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주를 섬기는 귀한 MP채플 중고등부가 되리라 굳게 믿어집니다. | 나형철 기자 |

■ 9목장(밸리)

■ 3목장(MP)

나눔, 부담에서 이젠 기다림으로



밸리채플의 가장 구석진 방에서는 매주 나눔의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바로 밸리채플 9목장의 목장모임이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최형선 안수집사님과 최정화 집사님 부부가 목자로 섬기고 있으며 23 명의 목원들로 구성되어있다. 5가정 정도가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새식구이며 주로 중장년의 연령층으로 짜여져 있는 9목장은, 처음 목장을 시작했던 2월 첫주부터, 각자의 생각과 세상의 방대한 지식으로 열정적인 나눔의 장을 열기 시작했고, 이제는 매주 목사님의 만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나날이 말씀의 깊이를 더 해가는 중이다. 아마도 밸리채플에서 가장 늦게 끝나는 목장모임이 아닐까 싶다.

4월중에 처음으로 목장식구가 되신 최종선 최옥희 집사님 부부께서는 목장의 나눔은 주로 여자 성도님들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목장은 남자분들이 더 많은 대화를 이어가니 참 보기 좋다고 모임의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목장 구성원들은 모두가 주일 목장모임과, 월말이면 가정에서 드러지는 월말모임이, 처음에는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모임이었다면 이제는 바쁘기만한 생활 가운데에서도 신선한 기다림으로 자리매김한다고 입을 모으신다.

9목장의 목원들 모두는 이렇게 시작한 나눔을 바탕으로, 변화된 삶을 추구하며, 더 나아가서는 목장에서 교회전체로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며, 예수이름으로 9목장을 축복한다. | 임용자 기자 |

아름다운 만남, 복 받은 성도들



MP채플의 3목장은 고용희 안수집사님과 고하나 권사님께서 목자로 섬기고 계시며, 목자장으로는 나형철 장로님과 나윤자 권사님 이십니다.

3목장에는 60대 전후반의 식구들이 약 20여명으로 거주지역은 파사데나와 LA, 멀리는 가테나에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매주 목장모임에는 10여명이 브니엘카페에서 모이시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목장 식구들은 최혁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번 아주 새롭게 들은 것처럼 은혜로운 나눔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장모임을 하기 전의 교구모임에서는 공과공부 후에 잡담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목장모임으로 모이면서 서로의 삶을 너무 은혜롭게 나누며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받으시니 너무 감사하다고 합니다. 매 주일 목장모임에서 받은 질문의 이해력이 높아 살아오신 삶을 나누시므로 목장모임이 예배의 연속인 것 같아 너무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타 주에서 오신 손님께서 예배 후에 목장모임에 오셔서 눈물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주안에 성도님들은 복받은 자들이라며 너무 너무 부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고용희, 고하나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은 사업때문에 1부예배를 드리셔서 목장모임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과 아직까지 목장모임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신 목장식구들의 목장참석과 르 분들의 건강을 위해 새벽예배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작년 11월까지 법원 구내식당을 운영하셨던 목사님은 11월에 은퇴하시고 앞으로의 삶은 주안에교회와 목장식구들을 위해 더욱 새벽제단을 지키는 목자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 박경숙 기자 |

■ 교우비즈니스 안내

SEONG UN JOE

VIIA TRAFFIC SCHOOL 비자운전학교

213-739-8181

vijasj@gmail.com

4157 W. 5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정원 공사

나형철 Cell: 213.999.2967

Tel: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sfastfoto@hanmail.net
2941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Master Car Auto Body Shop

Danny Lee (이원근)

5801 S. Central Ave #H
Los Angeles, CA 90011

wonkni@gmail.com
(213) 703 - 0777

보험수리, 리스리턴,
렌트카, 토잉 서비스

■ 선교 후기(3)

〈지난 호에 이어〉 아이들이 꿈을 꿀 거야. 십계명을 읽으며 하나님을 배워갈 거야. 주기도문을 읽으며 기도를 배워갈 거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크게 써서 벽에 붙여 놓고 보니 아이들의 더러운 손으로 금방 지워질 것 같아서 비닐 테이프로 라미네이트를 하면서 떠나는 밤을 지새웠었다. 아이들아. 너희는 말씀 안에서 꿈을 꾸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목적을 세우렴.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한국에서 온 의료팀들과 만나, 약품 정리를 하고 어느 시골 마을로 찾아가야 한다고 해서 또 하루 종일 택시를 달려 갔다. 한국 팀은 호평 아산 내과 병원 배창환 원장님, 더 투게더 멤버들, 다나눔 봉사단들이 준비한 여러가지 의료 약품과 티셔츠를 천벌 정도, 돋보기, 한방과스, 어린이들 교육을 위한 칫솔, 어린이 미술 교재,



나눔의 기쁨
〈이예스더 기자〉

많은 캔디들, 웨딩을 위한 드레스들과 택시도를 위시해 모든 액세서리까지 2쌍을 준비해 왔다. 모든 준비를 해 왔지만 영어가 안되니까, 영어로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도와서 일을 해야 했다. 나는 3일 동안 900여명의 환자를 돌본 의료팀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나는 안경 부분을 맡아 일했다. 유난히 안경 쓰기를 좋아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지만 비싸서 구해 쓸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돋보기를 설명하고, 모양으로 쓰는 것이 아니니 절대 외출할 때 끼고 걸으면 안 된다고 누누히 알려주며 맞는 돋보기를 찾아 주었다. 작은 글씨를 주고 읽으라고 하면 “난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런데 왜 돋보기가 필요하니?” 바느질할 때라도 쓸 수 있지.” 곁에서 대표 선교사님이 말씀 하신다.

그 도시의 시장과 보건소장은 나의 나이에 대해 많이 궁금해 했다. 55세의 보건소장이 자기 또래로 나를 보고 건방(?)을 떨어서 내가 71세라고 했더니 무얼 먹어서 그렇게 젊으냐고 되묻는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이해를 못하는 얼굴이다. “성경을 매일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활이야.”

한국에서 준비해온 웨딩 드레스를 입혀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걱정을 하길래 보건소 청년을 잡고 말을 걸었다. “혹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니? “저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 한달 반이 되었어요.” “아내에게 드레스를 입혀주고 너는 택시도 입고 사진 찍어 줄게 아내를 데리고 올래?” 모든 보건소 직원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가진 결혼 사진 촬영, 청년이 그날 기뻐하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의료팀 중에 중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이 있었다. 나는 그를 부를 때 Jr.Dr. 라고 불렀다. 아기 때 중국에서 살았고, 소년 때 싱가포르에서 살아서 국제통이다. “너 의대 갈거니?” 물으니 미소로 답을 한다. 캄보디아 의료 선교와 탄자니아 의료선교 후에 아이는 의사가 되기로 마음 먹은 것 같았다. 학생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의료선교를 써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다.

■ 가족 여행(2)

〈지난 호에 이어〉 숙소에서 나와 몇 블락을 걷다가 만난 여행 소개 부스에서 셋째 날과 넷째 날 여행 패키지를 예약한 후, 택시를 타고 칸쿤내 시장안의 야외식당에서 맛있게 식사를 했으나 남편이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실수로 약간의 바가지를 썼지만 평소에 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안 긁어서인가 그러려니 하고 쿨하게 넘어갔다.

택시로 칸쿤 바닷가에 도착해 바닷가 모래를 밟는 순간, 밀가루로 착각 할 정도로 모래가 너무 하얗고 부드러운게 촉감이 너무 좋아 영화 '맨발의 청춘이 아닌 맨발의 중년'이 되어 걸었다. 모두가 함께 걷다가 아이들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남편과 나는 부둣가에 앉아 바다속이 다 보이는 바다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칸쿤 해변가도 걷고 바다에서도 놀았으니 이제 숙소로 돌아가



칸쿤의 추억
〈박경숙 기자〉

려고 호텔앞에서 있는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물었더니 칸쿤으로 갈 때보다 2배정도를 더 내라해서 일단은 거절을 하고, 마침 눈앞에 스타벅스가 보여 거거서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스타벅스에서 숙소 매니저에게 사정이야기를 이메일로 보냈더니 답이 오기를, 길 건너에서 버스 R1을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 숙소동네로 오는 고속버스를 타라는 답이 왔다.

여러 나라 선교를 다녔던 구력으로 우리는 용감하게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 앞에 보이는 큰 마켓에서 장을 보고, 한 손에 봉다리를 하나씩 들고 길 건너 고속터미널에 도착했다. ALDO라는 고속터미널은 70년대 어느 시골 고속터미널을 연상케 해 나름 친근감이 있었고, 고속버스 안에서 이것저것 군것질을 판매하는 것 또한 옛날 그 시절을 기억나게 해서 혼자 미소 지었다.

숙소 근처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무사히 우리 숙소로 도착, 저녁으로는 동네의 Toco.com이라는 야외식당에서 진짜 맛있는 소스와 함께 맛있는 타코를 먹었다. 독특한 향의 소스와 타코가 얼마나 맛있던지 마지막 날, 점심은 이곳에서 먹고 떠나기로 약속까지 했다.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될겸 숙소로 걸어오는데, 벤차에다 빵을 싣고 팔고 다니는 빵장수 아저씨가 마이크로 워라 워라 하면서 음악을 트는데 갑자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싸이의 "오빤 강남스타일~" 이란 노래가 나와 얼마나 놀라면서 신기하던지 이 먼 나라 작은 마을에서 들려오는 우리나라 가요소리에 기분은 한층 더 'UP' 되었다.

아침에 이 곳 숙소로 올 때에는 칸쿤에서 떨어져 걱정을 했는데, 도시적인 칸쿤보다는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시골틱한 마을에서 지내게 되어 너무 행복했다.

우리의 실수로 예약한 숙소가 우리 맘에 딱 드는 숙소임을 보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행 첫 날이었다.

■ 새가족 소개

"말씀만 듣자" 등록했지만 목장생활 기쁨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주안예교회로 아내인 신혜란 집사와 함께 출석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오레지카운티에서 살면서 16여년 한 교회만을 섬기다가 아들 대학 진학을 계기로 엘에이 다운타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한 교회만 다니다 신앙의 시야가 너무 좁아져 있는 것 같고 해서 나를 자유로운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냥 말씀만 들으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을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어느 교회로 나갈까 고민을 하던 중에



신선호, 신혜란 집사(벨리)

예전 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현재 MP채플에서 계시는 집사님 부부의 권면과 함께 예전에 한 두번 설교를 접했던 최혁 목사님의 말씀이 금급해지고,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집사님 친구 부부 집사님과의 의견 일치 몇가지의 우연인듯 우연 아닌(?)요인들로 인해 집에서 가까운 곳인 주안예교회 벨리채플에 드디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최혁 목사님 말씀만 들으며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마음을 먹었지만, 새가족 담당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목회자 분들의 헌신을 보

면서 교회 생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으며, 목장에도 참여하기로 해서 9목장에 배정이 되어 주안예교회 성도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목장에 오고 보니 목자이신 최형선, 최정화 집사님의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기시며 수고하시는 모습과 각 목원들 또한 사랑과 정성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안예교회 성도로서 또 9목장의 목원으로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묶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위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저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교회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애초 생각보다는 먼거리인 벨리 채플로 저희를 인도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주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새로운 신앙관으로 생각하게 해 주시는 최혁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아울러 새롭게 만나게 된 9목장 식구들과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에 대한 영적인 교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아픔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 늘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주안예교회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도와 계획에 따라 주안예교회의 성도요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고자 다짐해 봅니다.

■ 힐링캠프 간증

'예수 나의 치료자' 눈물이

목장식구들의 권유와 주안예교회로 돌아온지 한달여 만에 처음 참석한 수요일예배에서의 최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힐링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오르는 버스 안에서의 차멀미에 컨디션이 안좋아 처음엔 앉아서 첫 찬양을 드렸습니다. 한, 두곡 지나며 어지러움을 누르고 일어나 손들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예수 나의 치료자'란 찬양곡이 나왔습니다. 저로서 처음 접해보는 곡이었는데, 목이 메이며 눈물이 저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힐링캠프 '뿌리깊은 나무' 테이블/ 글: 박철 집사

아내의 사랑을 얻기 위해 '당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나도 사랑할게' 했던 나의 사랑고백이 생각 났습니다. 결혼 후, 내 고집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집 근처의 작은 교회에서 초짜인 나와 보조를 맞추는 아내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요. 어쩌다 부부싸움(?)을 할 때면 여지없이 '나 교회 안나가!'라는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산 속에서의 첫날 밤, 침묵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눈이, 30년전에 언뜻 나를 자애로운 그러나 안타까운 듯 보시는 그분을 마음으로 경험하며 주일예배 시간에 오열 했던 기억과 '예수 나의 치료자'의 가사가 합쳐지며 감격과 환희의 감정의 밤을 지냈습니다. 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60이 넘어서 이제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온 나를 만나주시려고... 한번 더 나의 사랑고백을 받아주시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이런 은혜스러운 프로그램은 사람들의 계획과 노력만으론 불가능하지요. 산 위에서 '예수님과 나'만의 만남을 위해 산 밑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헌신없이 가능했을까? 진심으로 힐링캠프 관계가 여러 형제, 자매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분들께 나는 큰 사랑의 빛을 쬐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주일이면 은혜 기대 설레이어...



왕로연 집사(MP)

저는 플러튼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안예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최혁 목사님의 말씀과의 만남은 저의 복잡하고 답이 없던 믿음생활에 여러방향과 여러 모양으로 “아! 그렇구나!”라는 답을 만날수있게 해 주셨습니다.

간절했던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한 계획을 예비하시고 또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확실하게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안예교회를 통한 아버지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보여지며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움을 느낍니다.

주일 아침이면,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로 향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궁금증 물어보세요(2)

지난달에 이어 이번 호 부터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하여 한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나 질문이 있으시면 가까운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나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web site를 검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직접 관리하거나 혹은 연방 정부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이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서 운영하는 SSI, County 정부 산하 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s에서 관리하는 Calfresh (과거 Food Stamps 라고 불리었음)와 Medical 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이번 호에는 SSI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1)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통상 SSI 라고 부르는 이 혜택은 나이가 65가 넘었거나 65세가 안되었더라도 신체에 장애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현금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의 신청은 각 거주 지역의 SSA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접수하시거나 web site: SSA.Gov에 들어가서 online 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65세가 넘는 시민권 자 혹은 영주권 자로써 영주권 자는 영주권을 1996년 11월 이전에 취득한 자 혹은 그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이 있어서 그 기록이 40 credit을 넘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Credit은 매년 SSA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보내주지만 만일 그 기록을 못 받았을 경우 SSA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수입원이 없거나 혹은 직장이 있더라도 그 수입 액수가

SSI

<65세 이상 · 장애자 생계비 보조>

노재덕 집사



부동산이 있거나 1대 이상의 자동차가 있을 경우 이는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주의 깊게 관찰하는 서류 중 하나가 은행 계좌입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은 대부분 사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 재정은 은행 계좌를 통하여 살펴 볼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최근 6개월 치의 Statement 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은행 잔고가 개인 \$2,000 이하 부부 \$3,000 이하로 남아있어야 하며 오해 받을 수 있는 큰 액수의 지출이나 입금 기록이 없는 것이 좋겠습니다.

4) SSI 액수는 각 주마다 생활 비용을 고려하여 책정하므로 조금씩 다르며 California 경우 타 주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California주에서 받는 SSI에는 식품구입에 대한 혜택도 포함되어 있기에 Calfresh (Food Stamps)를 추가로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5)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해서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 접수 되는 모든 서류는 다 기록되어져서 이후 이 서류들을 항상 대조하게 됨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SSI 액수보다 낮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수입은 부부일 경우 부부의 수입을 다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은퇴를 하셔서 받는 은퇴 연금(SSA retirement)도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참고로 받으실 수 있는 SSI 혜택 액수는 혼자일 경우 매달 \$910, 부부일 경우 \$1,532 이며 장애자로 받으실 경우 이 액수는 조금 더 올라 갑니다.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의 가치는 자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00
MP채플/ 1부 오전 9:30, 2부 11:3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밸리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MP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MP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수 저녁 7:45
MP채플/ 주일 오전 11:30, 금 저녁 7:45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0:00, MP채플/ 주일 오전 11:3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MP채플 MP Chapel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주안에” 2018년 6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회 문서서약국

문서서약국 명단: 오희경(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경숙, 박창신, 박희정, 이광영, 이애스더, 임용자, 조성은, 조용대(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